

오피니언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호남 문화

정 빠로알끼

법과 질서



조현종

대한제국은 열강의 침입에 의해 무너져 가는 조선이 와친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조선이 일강에 의탁하여 국운을 연명하던 시절, 일제는 을사늑약과 통감정치로 침략을 노골화하면서 정치는 물론 경제적인 수탈의 선봉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와 하늘 아래서 함께 숨 쉬고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조성이 이 정도니 국가의 안위는 물론이라니 백성의 삶은 폐해하기 이를 데 없었다.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역사는 전면에 백성을 등장케 한다. 각자에게 일어선 한낱의 병의 무력투쟁과 우국지사의 애국활동이 그것이다.

무기와 인원, 조직력의 열세를 감내하면서 일제에 항거하다 쓰러져 지금은 초야에 둘러온 호남의 병의 이야기는 차마 애처롭기 그지없고, 단암의 와중에서도 면면히 펼쳐진 민족정신의 양양과 주권회복을 위한 지식인들의 애국활동은 실로 가슴을 벅차오르게 한다.

호남학회가 결성된 것도 이즈음이다. 말하자면 호남을 대간 학술단체가 1907년 7월 6일 서울에서 창립된다. 벌써 100

년 전의 일이다. 당시 회의록에는 학교설립 등의 취지 내용, 임원 구성, 참석인원 112명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학회결성의 최대 목표는 '독립사상의 고취'에 있었지만, 곁으로는 '호남지역의 교육 및 지식의 전달 보급'을 위한 계몽활동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는 월보간행, 교육장려를 위한 강연회, 재경 호남출신 학생의 후원, 법학 강습소 설립 및 졸업학교 설립 등이 이때 실행된다.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고민의 흔적을 보면 줄곧 재정난이 심화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학회의 회원은 20세 이상의 호남지역 출생자나 거주인으로 자격을 한정하였으며, 입회금과 월회비, 기부금을 납부가 부과되었다.

학술활동의 중심은 교육활동이었다. 월보로 간행한 학회 기관지인 호남학보는 변화하는 신조류를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고 있다. 새로운 사립학교 설립이나 의무교육, 정치학, 법률학, 농상공학, 국가론 등 그 영역은 비교적 광범위하다.

물론 여기에 가정학이나 임산부·육아 문제, 역사 속의 위인과 전기, 지역문화의 개발과 관련된 교양과 계몽활동을 병행하여 이를바 학회로서의 형식과 활동을 총

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같은 해, 일제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뵈워시키고 순종을 즉위케 했을 뿐 아니라 군대를 해산한다. 나라가 식물인간과 같은 지경에 이른 시점에서 호남학회는 민족훈을 살리고 교육을 통한 주권회복을 지향하였다.

당시에는 호남뿐 아니라 기호, 서북, 관동, 영남 등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지역학회 창립의 붐이 일었다. 대부분 본부를 서울에 두었으나 재경향우회적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향토문화 진흥과 개발을 연계한 것은 호남학회가 특별하다.

나라 사정이 통째로 어려웠던 만큼 당시 학회와 같은 사회단체의 재정은 더욱 형편이 없었다. 특히 회원의 회비에 의존해야했던 호남학회는 더욱 그러했다. 물론 학회의 조직이 애국심의 발로인 깊숙에 정신적인 측면이 강했다는 점은 부인 할 수 있지만, 창립 초기 100원 정도의 기부금이 전부였다.

1000원 단위 이상이 하다한 타 지역학회와 달리 일찍 재정난에 봉착하게 된 이유이다. 이것은 학회가 지역사회나 재경 호남인에게 외면된 탓이거나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1910년 8월 일제는 조선을 병합하고 이즈음 대부분의 학회들이 해산된다. 재정난은 물론 일제의 가중되는 일제의 간섭이 주원인이었지만, 과다할 정도로 많은 각종 계몽단체의 난립이나 학회의 내실을 기하지 못한 점도 잠재적으로 발전을 저해하였다.

해산 당시 호남학회는 서울의 중앙회와 함께 지방에 설치된 지회가 전북 29개소, 전남 23개소이고 회원 수는 565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부대가 서울인 점은 회원 수에 비해 지역민의 참여의식을 저조하게 만든 요인이다.

한편, 학회의 구성과 활동이 전북인사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점은 흥미 있는 일이며, 회가 재송신도 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점은 그동안 광주나 전남지역에서 호남학회가 조명되지 않는 까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활동에 비해 찾은 임원 개선만을 뒤풀어 하고 있다는 지적이나 부실한 회계, 재정 운용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탄과 반성 등은 예나 지금이나 학회의 단골메뉴이다.

〈국립광주박물관장·문학박사〉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정진수

청년실업률 해법, 청년창업에 있다

정서까지 만들었다. 부모들은 자녀가 벤처 기업을 한다면 집안 말아먹는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 후로 10년 후, 다시 벤처 열풍이 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10년 전의 벤처와는 질적으로 다른 청년벤처기업이다. 보다 정교하고 탄탄한 인프라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개교해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도전의식과 창의정신이 넘치는 청년CEO들을 길러내기 위함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각종 수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창업단계에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 이후 청년창업전용자금을 지원하고 사업화단계에서 판로 개척, 기업진단 등 중진공 고유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폐기와 열정이 있는 청년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인프라가 제공되는 것이다.

청년창업전용자금은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조건은 연 3% 이내 고정금리

또 이들에게는 사업기간 1년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최대 1억 원 이내의 창업 활동비와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단계별 사업비가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창업센터를 전국 13개 지역본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광주지역본부에 설치된 청년창업센터는 광주·전남지역의 만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각종 수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창업단계에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 이후 청년창업전용자금을 지원하고 사업화단계에서 판로 개척, 기업진단 등 중진공 고유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폐기와 열정이 있는 청년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인프라가 제공되는 것이다.

청년창업 활성화는 경제 생태계를 짚고 역동적으로 만들고 청년 실업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 창업센터를 통해 생긴 기업은 신규 고용을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이다.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센터를 통해 벤처의 이름이 명예 회복하기 기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기고



노두근

지자체간 상생 모델을 만들자

귀농, 귀촌자(은퇴자)가 줄을 잇는다고 한다.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이다.

전남도내에는 이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고을이 있으나 합평천지(咸平天地)이다. 다 할 함(咸), 회평(平, 평원을 평(平), 즉 두루 평화스럽고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고을이다.

조선시대에는 합평(咸平)이 호남가 첫머리에 등장할 정도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온 살기 좋은 땅이었다. 이외에도 두 지역은 각각 강진만과 합평만의 바다를 깨고 있으며, 국도 1·2호선과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예로부터 교통 및 군사의 요충지로서 인구 4만여명 내외의 비슷한 점이 많은 작은 지역자체이다.

최근 들어 두 지역은 농어민 소득증대, 지방단조 및 기업유치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크고 작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역축제 분야에서 꽂을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합평 나비 축제는 문화관광부 주관 최우수 축제에 4번이나 선정됐고 국가인증 나비엑스포를 지난 2008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강진 청자축제는 최우수 축제 9번 선정에 이어 2년 전부터 국가대표 축제로 선발되어 국비지원을 받는 등 전국 최고의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두 축제가 규모나 외형적, 인지도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는 내실을 기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연结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관 주도의 축제 운영을 탈피하고 민간 주도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나비축제는 곤충애호단체나 곤충배양업체(농가)가 주도하고, 청자축제는 청자조합(기업체)이 투자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리기 위해서는 축제의 기획, 운영 기술자를 지역민 중에서 선발 양성하여 투입시

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이익을 남기는 경영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지역우수제품을 축제 공식상품으로 지정하고 참여주체인 기업체나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 흑자축제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인접 시군의 축제와 연계 개최하는 이른바 '광역축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청자축제는 작년부터 장흥 물 축제와 홍보 등 일정부분 공동개최하고 있으나 과감히 분야를 확대하고 나비축제는 나주시 흥아(休雅)축제나 장성 홍길동 축제 등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래야 수요자(관광객) 중심의 체제형 경영 축제가 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나 독일의 뮌헨 막주축제처럼 기업이나 지역민이 직접 주도하는 자립축제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합평군과 강진군이 축제에서부터 서로 노하우를 교류하고 각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접목하는 등 지역민들과 공직자들이 상생의 지자체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이 또한 즐거운 일 아니겠는가?

〈전남도의회사무처 입법지원관〉

고수의 보장 유혹 인터넷 유사수신 광고에 속지 마세요

인터넷을 열면 악방의 감초처럼 꼭 떠오르는 배너 광고가 있다. 고수의 보장을 미끼로 기승을 부리는 유사수신 광고가 그것이다. 이는 불법 자금모집 행위인데도 인터넷 메일이나 카페 창을 열면 항상 떠오른다.

요즘 같은 초기금리 시대에는 여윳돈으로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유사수신에 돈이 가는 게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수의 보장 조건으로 자금을 모

으는 곳에 돈을 던져 맡겼다는 본전도 못 건지고 그냥 날리기 심상이다. 이런 유사수신은 주식, 선물, 음선 같은 증권 관련 사업을 기장한 업체가 가장 많고 농축수산업이나 건강보조식품 관련 사업을 내건 업체도 많다.

이미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나 연금을 많이 받은 공무원 혹은 공기업 쪽의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삼아 수신을 부추긴다. 예를 들어 월 6%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유혹하는 형식이다. 1년 이자가 3% 안팎인 은행에 비해 월 6%를 준다면 거기에 눈길이 안 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생활필수품 수출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업체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외국 금광을 인수 한다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해외 자원개발도 이런 유사수신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유사수신에 넣었다가는 자금 회수가 안 되면 그대로 다 날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들이 예전에 속지 않도록 둘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하는데, 고금리와 고수익에 혼혹 당해 선뜻 돈을 넣는 실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시설

4·11 총선 벌써부터 혼탁·과열돼서야

4·11 총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혼탁·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도내 일부 지역에서 벌써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설 명절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관련, 광주·전남 불법 선거운동이 19일 현재 총 40건이라고 밝혔다. 8개 선거구, 3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광주에서는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금품·음식물 제공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물 배부 5건, 기타 6건 등이었다. 선관위는 3건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으며 12건은 경고조치된다.

12개 선거구, 50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전남은 총 23건의 불법 사례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인쇄물 배부와 문자 메시지 전송이 각각 5건과 7건이었으며, 금품·음식물 제공과 상대후보 비방이 각 1건이었다. 선관위는 2건을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한다.

설명절 '온정의 손길' 뜻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설 명절(23일)이 다가오지만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삼십감이 더 크다고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끊기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마저 지원금도 전년보다 10%나 감소했다.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금액이 줄고, 복지시설을 찾는 발걸음이 뜸하다는 게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올해는 공동모금회 실적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하니 모금액의 일부라도 복지시설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설 명절에 저소득층 가정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했던 공동모금회는 8000만 원이 줄어든 6000만 원 밖에 책정하지 않아 공동모금회 지원만 바라던 소규모 시설 분위기가 침체된 상태다.

슬슬 설 명절을 맞게 되는 곳은 비단 소규모 시설만이 아니다. 웬만한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도 과거 명절 때면 독지가의 후원금이나 물품 기부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물을 설은 온정의 손길이

無等鼓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이다. 2008년 책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라는 두 거울 배우가 주연한 동명 영화로 유명해졌지만 원래는 중세시대 영국에서 유래됐다.

당시에는 죄인들을 교수형에 처할 때 목에 옮기거나 양동이(Bucket)에 올라서게 했다. 그런 뒤 양동이를 차려 사형을 집행했다.

‘킥 더 버켓(Kick the bucket)’은 여기서 유래된 말로 지금도 ‘사형을 집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가슴에 품고 사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죽을 앞에서 행복을 절박하게 갈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살면서 한 일보다 해보지 못한 일을 더욱 후회하게 된다. 후회없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수사례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 하루씩 지워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창군·유영만이 지난해 폐년 ‘꼭 이루고 싶은 자신과의 약속, 버킷리스트’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두 남

/정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